

참여하고 싶은 학회! 참여하면 즐겁고 유익한 한국고분자학회!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이하는 희망과 도약의 상징인 백호의 해라고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하신 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현재 회비납부회원 수 3,200여 명, 춘·추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수 2,000여 편, 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 200여 편, 영문지 충격지수 1.787 등 양적·질적인 모든 측면에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학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성장과 발전은 1976년 창립 이래 역대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학회를 이끌어가는 기회를 주심에 무척 감사한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대외적으로는 인지도와 위상이 대폭 향상되고, 대내적으로는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더욱 건실한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참여하고 싶은 학회! 참여하면 즐겁고 유익한 학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행되는 기존 학회행사들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분자신기술 강좌, 고분자아카데미, 고분자 기기분석 등은 수요자 밀착형 교육·훈련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다른 어떤 학회보다도 산학연의 연계성이 강합니다. 이는 산학연의 동반자적 발전과 지속성장의 잠재력임으로 산학연 유대강화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분자포럼>은 산학연 중진들이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미래 지향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의 지원과 협조 하에 국내 고분자가공업계 종사자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술혁신 세미나>는 현장밀착형 실용적 세미나가 되도록 연사와 주제 선정에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휴식과 침묵도모, 그리고 정보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위해 7월에 <하계 산학연 workshop>을 개최코자 합니다.

내일의 주역인 대학원생 등 학생회원들의 학회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춘계학술발표회부터 별도의 발표회장을 개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에 지부행사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본부와 지부, 지부와 지부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한 전 회원님들이 다른 지부 학술활동이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된 학회의 위상에 걸맞게 영문 홈페이지의 개편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의 국제적인 위상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투고논문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매월 발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경우에도 게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증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소재는 자동차, 전기전자, IT 등 첨단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책수립과 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호방문·초청강연 등을 통해 관련부처 정책입안자들의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중요성과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 개최될 PP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레이새한 사장이신 이영관 수석부회장과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신 이두성 부회장, 전북대학교 교수이신 이대수 부회장, LG화학 기술원장이신 유진영 부회장, 에이스디지텍의 사장이신 동현수 부회장 등 회장단과 학회운영을 총괄할 성균관대학교 이준영 전무이사를 비롯한 운영이사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9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야기된 총체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학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윤진산 회장님, 포항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시피 모든 정열을 학회업무 수행에 헌신하신 조길원 전임 전무이사님과 운영이사님들의 희생과 봉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희망찬 백호의 해에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업무에 훌륭한 성과가 있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월 1일

신임회장 최길영